

대만불교 정화과정 연구

김응철*

• 목 차 •

- I. 서언
- II. 일본의 대만 점령과 식민통치
- III. 대만불교의 전파 과정과 제 종파
- IV. 대만불교의 정화 과정
- V. 결어

* 중앙승가대학교 포교사회학과 교수.

© 『大覺思想』 제35집 (2021년 6월), pp.45-71.

한글요약

본 고찰은 대만불교의 정화과정 및 성격을 정리한 글이다. 대만불교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으나, 최근에는 대만불교에 관심을 갖는 흐름이 일어났다. 이런 배경에서 대만불교의 역사, 정체성, 발전의 요인, 인물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필자는 이 글에서 대만불교의 정화 정체성에 대한 내용을 살펴려고 한다. 필자는 대만불교의 발전 요인을 사회복지 차원에서 주목한 바가 있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대만불교 정화의 특징을 몇 가지로 나누어 살핀다. 첫째, 계율 중심의 정화라는 측면이다. 둘째, 제도화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다. 셋째, 정화로 인해 사찰과 승려의 위상이 증대된 측면이다. 넷째, 정화로 인해 포교방법이 촉진되었다.

이와 같은 본 연구가 대만불교의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나아가서 이 고찰은 한국의 불교정화운동, 조계종단, 한국 현대사 등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대만불교, 불교정화, 일본불교, 대치식육, 대치승, 계율 정화

I. 서언

근대불교사에서 한국불교와 대만불교의 공통점이 있다면 일본 군국주의 강제합병과 일본불교의 진출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양국의 불교는 극심한 일본 불교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국은 36년 간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으나 대만은 50년 동안 지배를 받았다. 따라서 지배 기간만으로 보면 일본불교는 한국보다 대만불교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양국 불교계에 대한 일본불교의 영향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다. 하나는 승가의 대처제(帶妻制) 파급이며 다른 하나는 식육(食肉) 문화의 확산이었다. 대승불교권에서 활동하는 승가는 독신 수행승제도를 선택하였고, 더불어 일일삼식(一日三食)을 수용하면서 육식을 금하는 음식문화의 전통을 이어갔다. 특히 한국과 중국불교는 전통적인 율장정신을 수용하면서 독신 비구승 중심의 지계행(持戒行)을 수행의 근본으로 삼았다.

반면에 일본 불교계에서는 이미 1200년대에 대처식육(帶妻食肉)을 수용하였다. 가마쿠라 막부시대가 들어서면서 일본에서는 둔세승(遁世僧)들이 등장하였다. 묘에(明惠, 1173~1232), 호넨(法然, 1133~1212), 신란(親鸞, 1173~1262), 에이사이(榮西, 1141~1215), 도겐(道元, 1200~1253), 니치렌(日蓮, 1222~1282) 등이 등장하면서 일본 불교계에서는 검은 옷을 입은 신불교 집단의 활동이 활발해졌다. 이들의 공통점은 대처식육을 허용하면서 세속에 은둔하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신란이 비승비속의 삶을 영위하면서 계율 경시의 특징이 일본 불교의 보편적인 모습이 되었다.¹⁾

대처식육의 수용은 전통 승가의 계율을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이 따른다. 그런데 일본불교의 전통이 유입되면서 대만불교는 빠르게 식민지 치하에서 일본화되었다. 이 전통이 50년 동안 유지되면서 대만불교는 대륙의 전통불교와는 매우 다른 특이한 형태로 전개되었다. 전통불교 중심의 고산파, 일본 유입 불교인 일본파,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형성된 용화파 등이 대만불교의 세 가지 특징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1945년 우리나라와 함께 일본 식민치하에서 벗어난 대만불교는 상당기간 이와

1) 마츠오 겐지 지음, 김호성 옮김, 『인물로 보는 일본 불교사』,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5, pp.89-91.

같은 전통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한국과 대만의 불교계는 일본불교의 잔재를 씻어내는데 서로 다른 길을 걸었다. 한국불교는 봉암사 결사 및 불교정화운동을 추진하여 수행풍토 쇄신과 대처승 배제를 통해 과감한 왜색불교(倭色佛敎) 척결을 강조하였다. 이에 반해 대만불교는 수계법회를 개최하여 계율 준수를 통한 조용한 정화를 표방하였다.

한국불교는 자체적인 정화운동을 추진함으로써 불교계 내부의 분규로 이어졌다. 일본불교 척결을 내세운 한국 불교계의 정화과정은 곧 조계종과 태고종의 분규로 광복이후 약 25년간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반면에 대만불교는 중국 대륙에서 전통불교가 유입되면서 사찰을 놓고 갈등을 벌이기보다는 지역주민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지계행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일본파나 세속과 불교와의 싸움 보다는 계율을 지키지 않는 종교단체들이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방법을 취하였다.

대만불교가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게 된 것은 대륙에서 건너온 불교계 인사들이 초기에 대만 정부로부터 환영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대만 정부의 요직에 있었던 국민당 정부의 중추세력의 상당수는 기독교도인들이었기 때문이다. 장개석 총통을 비롯한 수뇌부들은 불교에 관심을 갖지 않았고, 따라서 대륙의 불교 탄압을 피해 대만에 온 스님들의 역할은 매우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²⁾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대만불교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화되어 오늘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최근 대만 불교계는 신홍 4대 종문이라고 하는 주요 종단과 전통불교 종단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동시에 서로 화합하면서 발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쟁의 근저에 자리 잡은 지계정신이 어떻게 대만불교 정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또한 이와 같은 대만불교의 정화는 한국불교의 현대사, 불교정화운동, 조계종단의 연구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일부 대만세력은 대륙에서 건너온 스님들을 홀대하였고, 대륙의 간첩으로 몰아 관가에 고발하는 사건도 있었다. 이로 인해 일부 스님들이 구속되는 사례도 나타났다. 따라서 대륙에서 건너온 스님들이 대만불교가 변질되었다고 해도 시끄럽고 복잡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조건과 한계가 있었다고 본다.

II. 일본의 대만 점령과 식민통치

1. 일본 강점기 이전의 대만 사회

1) 대두왕국 건립과 네덜란드 식민지배

대만에는 신석기시대부터 사람들이 거주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만에 거주한 원주민은 오스트로네시아족으로 14세기까지 고산족 문화와 전통을 이어오면서 작은 마을을 형성하고 살았다. 오랜 시간 독립된 부족사회로 살던 대만이 중국에 복속된 시기는 1360년으로 이 때 원(元)나라가 평후제도(澎湖諸島)에 순검사(巡檢司)를 설치하였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중국 복건성(福建省)의 천주(泉州)에 소속되었다.³⁾

대만은 16세기 초 포르투갈 선원들에 의하여 유럽에 알려졌다. 포르투갈 선원들이 “일라 포르모사(Ilha Formosa, 아름다운 섬)”라고 부르는 바람에 개항 초기에는 “포르모사”라는 명칭으로 대만을 부르기도 하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대만에 한족은 거의 이주하지 않았었다. 대만은 16세기 중엽인 1540년대에 대만의 평포족(平埔族) 중 파포라족(巴布拉族), 바브자족(貓霧揀族), 파제호족(巴則海族), 호아나족(洪雅族) 등이 주축이 되어 부족연맹체의 왕국을 건설하면서 어느 정도 독립국가의 체제를 갖추었다.

최초의 대만 왕국을 대두왕국(大肚王國)이라고도 하였으며, 대두번왕(大肚番王)은 모든 부락을 대표하는 인물로 선출된 통치자였다. 과족군집왕국(跨族群準王國)으로 부르는 부족연맹체의 대만 왕국은 청나라 옹정제 연간인 1732년까지 존속하다가 소멸되었다.

유럽 상인들이 명(明)나라 말기부터 대만을 자주 찾으면서 한족들이 조금씩 이주하였다. 네덜란드는 1624년 평후제도에 동인도 회사와 대만섬 서남부 지역인 대남(臺南)시 일대에 상업지구를 건립하였다. 그 다음해에 네덜란드인들은 현재의 타이난 시 안평구에 질란디아 즉, 熱蘭遮城을 설립하고 쌀과 사탕수수의 경작을 위해 복건성 주민들을 이주시켰다. 이때부터 한족들이 대만에 정착하기

3) 푸젠성은 중국 동남 연해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총124,140km²로 인구는 약 3471만 명(2000년 현재)로 한족(漢族)을 비롯하여 회족(回族), 몽고족, 묘족(苗族), 장족(壯族) 외에 고산족(高山族) 등 소수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http://www.widechina.net> 자료 참조.

시작하였다.

에스파니아 상인들은 1626년부터 1642년까지 대만 북부 지룽(鷓籠)과 서락오섬(社寮島) 일대를 점령하고 산살바도르 성을 세웠다. 그리고 점령지를 하쯔난(蛤仔難, 현재의 이란현) 지역까지 확장하고 산토도밍고 성을 세웠다. 그러나 먼저 입지를 구축한 네덜란드가 에스파냐아와의 경쟁에서 1642년 승리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대만을 식민지로 통치하였다. 또한 네덜란드는 동인도회사의 국제무역거점으로 대만지역을 활용하였으나 38년만인 1662년 정성공(鄭成功)이 정씨왕국을 건립함으로써 퇴각하였다.

2) 정성공이 건립한 정씨왕국

명나라의 멸망과 함께 1644년 만주족 중심의 청나라가 건국되자 정성공이 대만으로 이주하여 왕국을 건설하였다. 국제무역을 하던 정지룽⁴⁾은 일본과 교역을 하면서 다가와 시치자에몬(田川 七左衛門)이라는 상인의 딸과 결혼하여 정성공을 낳았다.

청나라가 건국되면서 정성공은 ‘반청복명(反淸復明)’을 내세우며 저항하는 유신들 중 한사람이 되었다. 9개월간의 전쟁이 패퇴로 돌아가자 정성공은 1661년 대만으로 건너왔다. 그리고 소멸된 명 황실에 충성을 다한 정성공은 대만 전역을 점령하고 정씨왕국을 건설하였으나 이듬해인 1662년 사망하였다. 정성공의 아들인 정극상이 정씨왕국의 왕위에 등극하여 21년 동안(1662~1683) 대만왕국을 유지하였으나⁵⁾ 정성공의 부하였던 시랑의 반역으로 대만의 정씨 왕국은 소멸하였다.⁶⁾

4) 정지룽(Cheng Chihlung, 鄭芝龍, 1604~1661)은 중국 푸젠 성[福建省] 난안[南安] 출신으로 소년 시절에 마카오의 포르투갈 조계(租界)에서 유럽인들에게 고용되었다. 마카오를 떠난 후에는 해적단에 발을 들였는데 1628년 중국 정부와 협력하여 해안지역을 보호하면서 부와 권력을 획득했다. 정지룽은 1644년 청을 세운 만주족에게 점령되자 청에 투항했으며, 작위와 높은 관직을 수여받았으나 그의 아들 정성공(鄭成功)이 투항을 거절함으로써 1661년 처형당했다.

5) 대만의 정씨왕국은 영국인들에 의하여 동녕왕국, 혹은 명경왕국(明京王國)으로도 부르기도 한다.

6) 대만 정씨왕국의 성립과정과 관련된 내용은 조너던 클레멘트가 지은 『해적왕 정성공』에서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조너던 클레멘토 지음, 허강 옮김, 『해적왕 정성공 - 녹정기의 추억』, 삼우반, 2008, p.504.

3) 청국 치하의 대만(1683~1895)

1683년 청국(淸國) 치하로 다시 복속된 대만은 복건성(福建省)의 관할에 소속되었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한족(漢族)의 이주가 시작되었다. 대만 인구의 약 85%는 이 시기에 이주한 한족계 본성인들의 후예들이다. 청국 복속 초기에 원주민들의 한화정책(漢化政策)의 일환으로 대륙에서 이주한 한족과 대만 원주민인 평포족(平埔族) 간의 통혼이 이루어졌다.

대만은 중국이 2차에 걸친 아편전쟁에서 영국에 패배하면서 다시 서구 열강에 항구를 내주었다. 중국과 영국사이의 전쟁은 1차(1839~1842)와 2차(1856~1860)에 걸쳐 일어났는데 전쟁의 원인이 아편 때문이어서 아편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전쟁에서 패한 중국은 텐진조약(天津條約)을 체결하면서 대만의安平항(安平港)과 지룽항(基隆港)을 개항함으로써 농업과 무역업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이 가속화되었다.

대만의 지정학적 위치와 이점은 서구와 일본 사이에 과도한 경쟁을 촉발시켰다. 이 과정에서 1874년 일본에 의해 모란사(牡丹社) 사건이 일어났다. 이 일은 류큐국 표류민들을 대만 토착민들이 살해한 사건⁷⁾으로 일본이 대만으로 출병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중국은 류큐국을 일본의 속국으로 인정하고, 동시에 대만 내에 일본군 점령지에 설치한 시설물의 대가를 지불하기로 약속하였다.

청나라와 프랑스 사이에 벌어진 청불전쟁(1884~1885)으로 대만의 국제적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1874년 사이공 조약에서 프랑스는 베트남의 6성을 식민지로 할양받고 베트남의 보호국이 되었는데 청나라가 이 조약의 무효화를 선언하자 프랑스 함대가 1884년 타이완 북부를 공격하였다. 이 때 대만의 지룽(基隆)이나 푸저우(福州) 및 민장(閩江) 연안을 점령하고, 이어 1885년 초에는 Ningbo(寧波)를 봉쇄하고 평후군도(澎湖群島)를 점령하였다. 건디지 못한 청국은 프랑스와 강화조약을 체결하면서 베트남에 대한 프랑스 보호권을 인정하였다.

대만 보호에 위기를 느낀 청은 1885년 류명전(劉銘傳)을 대만에 파견하여 22번째 성(省)으로 승격시켰다. 류명전은 행정구역을 3개 府, 1개 州 및 3개 廳으

7) 류큐국(琉球國)은 동중국해 남동부, 현재 일본 오키나와현 일대에 있었던 왕국으로 1429년 중산국(中山國)이 통일함으로써 시작되었다. 1609년 사쓰마번의 침공을 받은 이후 여러 차례 일본의 침략을 받다가 결국 1879년에 일본에 강제로 속국이 되어 오키나와 현으로 바뀌으로써 멸망하였다.

로 재판하고, 교통, 우편, 통신망을 정비하면서 대만의 근대화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10년 후인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에 따라 대만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2. 일본 강점기의 대만(1895~1945)

대만이 일본 식민지가 된 것은 청일전쟁에서 청국(淸國)이 패한 때문이다. 청일전쟁은 동학농민운동을 평정하기 위해 조선에 파병한 청나라와 일본군이 대립하면서 양국의 전쟁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 전쟁을 미국이 중재함으로써 1895년 3월 30일 휴전협정과 시모노세키 조약(下關條約)을 체결하였다. 청국의 이홍장(李鴻章)과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사이에 체결된 조약은 네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청국은 조선국이 완전한 자주독립국임을 인정한다.

둘째, 청국은 요동반도(遼東半島)와 대만 및 평후섬(澎湖島) 등을 일본에 할양한다.

셋째, 청국은 일본에 배상금 2억 냥을 지불한다.

넷째, 청국의 사스(沙市) · 충칭(重慶) · 쑤저우(蘇州) · 항저우(杭州)의 개항과 일본 선박의 양쯔강(揚子江) 및 그 부속 하천의 자유통항 용인, 그리고 일본인의 거주 · 영업 · 무역의 자유를 승인한다.

이 조약체결과 함께 대만은 이후 50년간 일본의 식민지로 복속되었다. 일본은 대만총독부를 설치하고 동화정책을 전개하였다. 그 일환으로 일본인들과 동등한 법을 적용하고, 문화 식민지 구축을 위한 황민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1936년부터 강화된 일본의 황민화정책(皇民化政策)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대만 내에서 중국어 신문을 금지하고 일본어 사용을 강요하였다.

둘째, 창씨개명을 요구하고, 육군과 해군에 대한 지원병제도를 도입하였다.

셋째, 대만을 일본의 오키나와현의 일부로 만들기 위해서 철도, 도로 등 사회 기반시설을 설치하였다.

넷째, 교육제도를 정비하여 일본식 소학교를 도입하였다.

다섯째, 일본불교 전파를 위하여 대만에 일본식 사찰들을 대거 건립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만불교는 본격적으로 일본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특히 일본총독부는 대만에 50개의 사찰을 건립하고 일본불교를 직접 이주시켰다. 이로 인해 대만불교는 빠르게 일본화 되었으며, 특히 재교 또는 운재교 라는 독특한 재가 불교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3. 광복 이후 대만의 변화

대만은 1945년에 중화민국으로 반환되었다. 중국 국민당 정부는 관료들을 파견하여 대만을 통치하였다. 1949년 국민당 정부는 국공 내전에서 중국 공산당에게 패해 대만으로 이전함으로써 중화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후 중국 본토와의 대립으로 반공을 내세운 국민당의 일당 독재체제가 1996년까지 지속되었다. 이후 대만 국민들이 직접선거로 총통을 선출하는 민주화가 이루어져 2000년 평화적인 정권교체로 대만은 새롭게 태어났다. 지금은 여야가 교대로 집권하는 빈번한 정권교체기로 접어들었다.

III. 대만불교의 전파 과정과 제 종파

1. 대만의 불교 전파 과정⁸⁾

대만의 공식적인 불교 전파는 17세기 중반의 일로 알려져 있다. 명청 교체기에 반청복명(反淸復明)의 기치를 내걸고 청에 대항하였던 세력들과 복건성 주민들이 대만에 이주하면서 불교도 함께 전파되었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대만 최초의 사찰은 17세기에 창건된 죽계사(竹溪寺)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1662년경에 창건된 용호암(龍湖庵)과 미타사(彌陀寺) 등이 더 먼저 건립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대만의 민간에서는 그 이전에 이미 불교가 신봉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의견도 있다. 왜냐하면 송과 명대의 불교가 대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8) 김응철, 「대만불교의 역사와 신흥 4대종문」, 『대만불교의 5가지 성공코드』, 불광연구원, 2012, pp.24-26에 게재된 내용을 요약하였다.

초기 대만불교 사찰은 주로 관청이나 정부 관원에 의하여 건립되었다. 청대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사찰로는 황벽사(黃蘗寺)가 있는데 강희 27년(1688)에 건립되었으며, 해회사(海會寺)는 강희 29년(1690)에 건립되었다. 그렇지만 강희 58년(1719)에 지어진 마조묘(媽祖廟)는 마조와 관음을 함께 모셨으며 승려가 거주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불교와 도교가 함께 신봉되었음을 보여 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대만의 불교는 출가자의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재가불자들이 스스로 불교를 믿고 사찰을 건립하는 경우들이 생겨났다. 그 대표적인 형태의 불교단체가 재교(齋教)이다. 건륭 18년(1748) 재교 단체는 청 조정에 의하여 사교(邪教) 단체로 규정되어 탄압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재가단체 중심의 불교가 활발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재교는 불교를 신봉하지만 출가주의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통불교로부터 외도(外道)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재가불교의 전통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일본불교와 융합하는 현상을 보였다. 그것은 대만에 전래된 일본불교와 기존의 재교 사이에 공통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일본불교 단체 중에서 진종 본원사파, 진종 대국파, 일련종, 정토종, 조동종, 진언종 교야산파 등이 대만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였다. 이 종파들은 대만의 재가불교 운동단체들을 끌어들이었으며, 대만불교도 중에서는 적극적으로 가입한 경우도 있었다. 일본의 대만총독부에서는 1915년 전면적인 종교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때 대만의 일부 승려와 재교도가 조동종과 임제종에 가입하여 보호를 받기도 하였다.

1922년 대만총독부는 대만불교와 일본불교를 연계하여 불교를 발전시킨다는 명목으로 난잉불교회(南瀛佛敎會)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1938년부터 사묘 정리운동을 실시하면서 법회와 가사, 독경 의식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요구하였다. 그리고 1943년부터는 가장(街庄) 단위에 하나의 사원만을 허용함으로써 대만불교의 저항을 불러 일으켰다.

1945년 대만의 독립 이후 불교계는 대만성불교회를 조직하였고, 1947년에 중국 본토에서 결성된 중국불교총회의 지부로 편입되었다. 그리고 1949년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천도하면서 중국불교회는 대만에서 재건되었다. 이때 중국 대륙에서 고승대덕 스님들이 대만으로 이주하면서 중국의 전통불교가 대거 유입되었다.

1950년대부터 대만에는 토착불교 세력과 본토에서 건너온 스님들 사이에 긴장 관계가 형성되었다. 본토에서 이주한 스님들은 일본 식민지 치하에서 건립된 사찰들을 차지하면서 전통불교를 복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일본불교의 잔재를 청산하고 승풍을 새롭게 진작시키기 위하여 모든 스님을 대상으로 재수 계식을 거행하였다.

2. 대만의 종교의 유형과 불교의 제 종파⁹⁾

대만의 종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는데 고산족(高山族) 중심의 원시신앙, 사회 저변에 널리 확산되어 있는 민간 통속 신앙, 그리고 불교를 비롯한 제도화된 종교 등이다. 제도화된 종교는 대만의 종교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법인격을 부여받은 각종 종교단체를 포함하고 있다.

고산족 중심의 원시신앙은 아미족(阿美族), 조족(曹族), 포의족(布衣族), 비남족(卑南族) 등 산악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주민들이 각종 애니미즘이나 토테미즘 형태의 신앙 행태에서 찾을 수 있다. 민간 통속 신앙은 대만에서 가장 보편화된 신앙행태로 천지(天地), 신불(神佛), 그리고 조선(祖先) 등 다양한 신봉대상이 있다. 민간 신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대상은 마조신앙이다.¹⁰⁾

대만의 제도화된 정식종교는 불교, 도교, 회교, 기독교, 천주교, 대동교, 천리교, 일관도 등을 비롯하여 총 14개 단체가 있다. 정식 종교는 다시 불교, 도교 등과 같은 중국 전통종교 계열, 기독교와 천주교 등 서양종교 계열, 그리고 천제교(天帝教), 천덕교 등과 같이 대만에서 창립된 신흥종교 계열 등 세 가지로 분류한다.

중화민국 내정부 종교통계 자료를 보면 불교계의 신앙 대상은 석가모니부처님

9) 김응철, 『대만불교의 성공요인과 한국불교의 성찰』, 『전법학연구』, 창간호, 2012, 불광연구원, pp.310-349.

10) 마조는 중화권에서 ‘바다의 수호신’으로 모시는 토속신앙의 대상이며, 마조를 모시는 진란궁은 ‘파도를 제압하는 사원’이란 뜻이다. 중국 푸젠성(福建省)의 ‘마조신앙’은 유네스코에서 세계 무형문화 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마조신앙은 중국 대륙을 비롯해 전 세계 20개국에 5천여 개의 마조를 모신 사원들이 있고 숭배자들은 무려 2억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을 비롯하여 약 30여 제불보살이 망라되어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¹¹⁾ 1946년 일본 강점기에서 벗어난 후 대만에서는 고산파(鼓山派), 일본파(日本派), 그리고 용화파(龍華派) 등 세 가지의 불교 전통이 계승되고 있었다.

고산파(鼓山派)는 대만불교에서 구파(舊派)로 분류되고 있다. 이는 중국 복건성의 복주(福州)에 소재한 고산(鼓山) 용천사(湧泉寺)에서 전래되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고산 용천사는 주로 대만스님들이 수계를 받고 승려 자격을 취득한 사찰이다. 여기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은 스님들은 계율을 엄격하게 지켰으며, 최소한 취처식육에 절대 반대였다. 고산파 불교는 일반의 보수적인 민중 신앙을 두루 포괄하면서 관법과 염불로 구경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대만의 보수적인 전통불교를 대표하고 있다.

<표 1> 대만의 다원적 종교 전통과 불교계 종파 유형

신앙 유형	유입 전통	종파
고산 원시신앙	아미족(阿美族) 조족(曹族) 포의족(布衣族) 비남족(卑南族)	
민간 통속신앙	마조신앙	
정식 종교신앙	중국 전통종교	도교계, 불교계
	대만 신흥종교	천제교, 천덕교, 일관도
	외국 유입종교	기독교, 카톨릭, 이슬람, 천리교 (일본유입)
불교계 제 종파	구파(고산파)	복건성 고산 용천사에서 유래
	신파(일본파)	일련종, 정토신종, 임제종, 조동종 등
	속파(신흥불교)	용화파, 선천파, 금당파, 운재교

대만불교의 신파(新派)로 분류되는 일본파(日本派)는 일본 강점기에 상륙하여

11) 대만불교 신앙의 대상으로는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지장왕보살, 미륵불, 문수보살, 보현보살, 준제보살 등을 비롯하여 화엄삼성, 자항보살, 아난존자 등 다양하다. 內政部 全國宗教資訊系統(<http://reli.gion.moi.gov.tw>)자료 참조.

중상류 지식 계층에서 환영을 받았다. 염불로 청정한 마음을 닦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일본과 대만불교는 한때 대만 사회 전반에 두루 확산되었으나 1945년 이후 교세가 급속하게 약화되었다. 그리고 상당수의 신도들은 재교(齋敎)나 용화파 등으로 분산 흡수되었다. 신파는 출가주의를 선택하고 있으나 일본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출가승의 식육과 대처를 모두 수용하고 있다.

속파(俗派)로 분류되는 용화파(龍華派)는 수선(修仙)으로 소재(消災, 재액의 소멸)와 연수(延壽, 수명장수)를 목적으로 신행활동을 한다. 용화파는 향촌(鄉村)의 농민들 사이에서 신앙으로 확산되었다. 속파는 용화파를 비롯하여 선천파, 금당파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¹²⁾ 선천파는 대처식육(帶妻食肉)을 모두 금했지만 재가주의를 선택하였다. 반면에 용화파는 출가주의를 선택하면서도 결혼은 허용하고 육식은 금하는 계율을 지켰다.

<표 2> 1945년 광복당시 대만불교 종파의 계율 준수 여부¹³⁾

불교 종파		대처 및 음주식육	
		결혼 가부	음주육식 가부
고산파		불가(不可)	불가(不可)
재교(齋敎)	선천파	불가(不可)	불가(不可)
	용화파	가(可)	불가(不可)
	금당파	가(可)	불가(不可)
일본 불교		가(可)	가(可)

이와 같은 실태를 분석해 보면 대만불교의 고산파와 재교의 선천파는 결혼하지 않고, 음주와 육식을 하지 않는 전통적 계율속에서 생활하였다. 그러나 재교의 용화파, 금당파는 결혼은 하지만 음주와 식육은 하지 않는 반면에 일본불교파는 모두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불교계는 대만 전통의 재교와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음주와 식육의 허용 여부에서 차이가 있었다.

대만불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재교(齋敎)는 일종의 재가불교 단체의 하

12) 釋東初 編著, 『東初老人全集5』, 東初出版社, 中華民國 99年, pp.19-21.

13) 서상문, 「저갓거리를 밝히는 청정승가의 빛」, 『불교평론』 10호, 2002 자료 참조.

나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재교의 구성원들은 사찰을 운영하면서 공동체를 만들었으며 스승과 제자의 관계 속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주로 염불과 경전 암송을 통해 신행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재교를 운영하는 재가불자들이 일본불교의 영향을 받고 그들과 소통하면서 대만불교계에서는 정화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재교와 일본불교계를 정화하는 것은 대만 자체의 동력이 아니라 대륙불교의 고승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대만불교는 1949년 중국불교회가 결성된 후 대륙불교 전통이 유입되면서 변화의 단초와 동력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1970년대 이후 사대종문 중심의 신흥불교 급속 발전하면서 전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3. 대만불교의 특징

식민지하의 대만불교 전통에 변화가 일어난 것은 중국 대륙으로부터 스님들이 건너오면서부터이다. 대륙에서 건너온 스님들은 일본파로 지칭되는 신파 불교와 용화파로 분류할 수 있는 속파 불교를 정화시키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중국불교회의 중심은 태허대사와 동초노인, 자항대사 등과 같은 고승들이 이들이 대만으로 건너옴으로써 대만불교의 새로운 변화를 초래하였다.¹⁴⁾

1960년대 후반에 대만불교는 두 번째 변화의 계기를 만들었다. 그것은 불광산사와 자제정사 등과 같은 새로운 종교단체의 결성에서 찾을 수 있다. 1966년 자제정사와 1967년 불광산사 개산은 지금까지의 대만불교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불교전통이 형성되는데 기여하였다. 인간불교(人間佛敎)를 표방하는 대만불교의 새로운 이념이 사회적으로 직접 실천하는 단계로 변모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대만불교는 신흥4대 종문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대만불교는 역사와 전통 속에서 형성된 독특하고 고유한 특징이 있다. 대만불교의 역사는 고대왕국과 청나라 복속, 네덜란드의 식민지, 일본의 식민지 등 여러 가지 정치사회적 변화에 영향을 받았다. 근대 대만불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일본의 식민통치 50년이였다.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이 현대 대만불교 형성에 영향을 주었고 그것들에 의해 나타난 대만불교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

14) 胡麗桂 編著, 『分享法鼓山』, 法鼓山文化事業股份有限公司, 2005, p.26.

과 같다.¹⁵⁾

첫째, 대만불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순수 불교의 모습과 도교와 토착종교 등과 결합된 복합종교의 모습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대만에서는 종교인구 조사가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불자들 중에서도 다른 토착신앙을 함께 믿는 경우가 많고, 전통 신앙을 하는 사람들도 불교 사찰에 와서 제를 올리거나 기도회에 참여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을 모두 갖춘 대표적인 사찰이 용산사(龍山寺)이다. 이 절에는 불상을 비롯하여 도교의 관운장과 여러 제신, 그리고 민간신앙의 상징물이 함께 있어서 중국 전통종교가 모두 모여 있음을 보여준다. 대만의 불자들 중에는 순수 불교를 신봉하는 사람들도 많으나 다수는 전통 종교에 습합되어 있는 필요에 따라 여러 종교를 함께 믿는 전통을 갖고 있다. 그러나 모든 사찰에서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통불교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사찰들도 다수가 있다.

둘째, 대만불교는 전통불교와 신흥불교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전통불교는 대륙에서 건너온 대승불교의 전통을 의미하며 17세기부터 전파된 고산파 불교의 모습이다. 반면에 신흥불교는 1960년대 중반 이후에 새롭게 창건된 신흥 사찰들의 모습이다. 자제공덕회, 불광산사, 중대선사, 그리고 범고산사 등이 대표적인 신흥 사대종문에 속한다. 전통사찰 중에서도 1895년 이전에 창건된 사찰과 일제 강점기에 창건된 사찰, 그리고 1946년 이후에 창건된 사찰들 사이에 다소 다른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다. 1895년 이전에 창건된 오랜 전통을 가진 사찰들은 도교와 민간신앙의 습합 정도가 높은 반면에 일본 식민지 치하에서 창건된 사찰들은 일본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1946년 이후에 창건된 사찰들은 대륙불교의 전통을 크게 받았다. 그렇지만 신흥 4대종문의 사찰들 중에서 자제정사, 범고산사, 중대선사 등은 건축 양식은 물론이고 신행생활과 교육 등에 있어서도 혁신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때문에 대만불교는 불교계 내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성을 함께 나타나는 특징이 나타난다.

셋째, 대만불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계율을 중시하는 청정불교 교단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1945년 이전의 대만불교는 50년간 일본불교의 영향

15) 김응철, 「대만불교의 역사와 신흥 4대종문」, 불광연구원 편, 『대만불교의 5가지 성공코드』, 2012, pp.27-30. 대만불교의 특징은 앞의 논문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다.

때문에 계율정신이 크게 해이해져 있었다. 이 당시에는 출제가의 구분이 모호해져 있었으며, 대채식육의 혼란상이 만연해 있었다. 그러나 1945년 독립이후 대만 불교는 청정비구 중심의 계율 정신을 회복하였다. 지계(持戒)의 정신은 승단뿐만 아니라 재가불자에게도 계승되었다. 대만의 불자들은 지계의 정신을 계승하여 채식을 중심으로 하는 소식(素食)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대만 전통의 사찰음식인 소식은 전통불교 사찰의 중요한 음식문화이다. 또한 소식은 불교도의 수행 방식의 일종으로 수용되고 있다. 대만불교의 지계정신은 대채 반대, 식육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만불교는 교육, 조직, 복지, 문화, 수행 등의 분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불광산사와 자제공덕회, 법고산사 등은 철저한 신도 교육으로 신심을 고양하고 조직화를 통해서 신도들의 결속을 이끌어 내고 있다. 이것이 현대사회에서 대만불교 발전의 원동력이다. 중대선사의 경우는 매년 년초 칠일간 집중수행을 행하는 선칠수행 프로그램으로 출제가의 수행풍토를 고양시키고 있다. 이것은 대만불교가 신앙중심의 전통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불광산사의 경우 주요 도시에 문화원을 건립하고 신도교육과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주요 지역에 미술관과 박물관 등을 건립하고 상설 전시를 실시한다. 자제공덕회는 국제구호와 각종 자선사업, 의료 및 교육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전통불교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혁신적인 활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섯째, 대만불교는 사회교육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불광산사의 경우 대만 불광대학과 남화대학, 미국의 서래대학과 호주의 남천 대학 등 4개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자제정사는 종합의대인 자제의과대학을 비롯하여 5개의 중학교와 소학교 및 기술학원 등을 운영한다. 법고산사는 법고산대학을 비롯하여 연구소와 연수학원 등을 운영 중이다. 대만불교 주요 사찰의 교육활동은 사회교육과 불교교육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특징을 보여준다. 즉 사회교육을 위한 일반교육기관의 설립과 더불어 그 속에서 불교교육을 함께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활동은 사회발전에 대한 기여뿐만 아니라 교단과 해당 종파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바 크다.

여섯째, 대만불교는 국제화를 위해서 세계 각국으로 진출하고 있다. 그 이유는 대만의 국토가 좁고 해외에는 많은 화교들이 진출하고 있어서 일찍부터 국제포

교에 관심을 많이 기울였기 때문이다. 불광산사는 약 200여개의 국제 분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스님들을 세계 각국으로 파견하고 있다. 자제정사에서는 세계 각국에 자선단체를 조직하고 있으며 자제회원들의 역량을 구호활동과 후원에 집중하고 있다. 법고산사도 10여개 해외 분원을 운영 중이다. 이러한 모습은 대만불교가 국내에 안주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계 대승불교권을 이끌어가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만불교는 티베트 불교 다음으로 활발하게 세계 각국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각종 불교 서적을 여러 언어로 번역하여 보급하는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IV. 대만불교의 정화과정

대만불교 정화의 주체는 대만성불교회에서 중국불교회로 그리고 대륙에서 이주한 전통불교계에 몸담은 스님들, 그리고 재가신도들이다. 즉 대만불교의 정화는 조직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 그리고 재가신도 중심의 사회적 차원 등 세 분야에서 동시에 일어났다. 대만불교 정화의 핵심은 율장정신의 회복이었다.

1. 대만성불교회의 정화 중책

1) 일제 강점기 건립 사찰의 환수

1945년 광복과 함께 형성된 대만성 정부는 일본인들이 거주하던 불교 사원과 포교소를 접수하는 교섭을 시행하였다. 교섭의 주체는 대만성불교회였다. 광복당시 대만 내에는 일본불교도들이 대만에 직접 건립한 사원과 다수의 대만불교 신도들이 출연하고 일본인들이 협조하여 건립된 사원, 불교계의 신도들이 출연한 건축물 등 매우 다양한 형태의 건물들이 있었다. 또한 대만 불교도들이 소유하고 있으나 일반 적산가옥과는 다른 사찰 건축물도 있었다.

대만성에서는 국내의 모든 일본불교 사원과 포교소는 그 소유권을 대만성불교분회로 이전하였다. 따라서 법적으로 큰 문제없이 대만 불교계는 식민치하여 불교 사찰과 건물들을 이양 받을 수 있었다. 다만 일부 시설의 경우 정부 군영을 건설하여 운영하고 이후 완성된 후에 적정한 때에 불교회가 사용하도록 이관(移

管) 하였다.¹⁶⁾ 그것은 일부시설의 경우 반공(反共) 항쟁기간 동안에는 정부가 사용하고 정부 군영이 건설되고 나면 불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하였다.

둘째,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불교경전, 도서, 문물 등은 대부분 불교권의 개인이 접수하거나 이부는 행정기관이 접수 보관하였다. 특히 경전류 등은 각 현에서 조직된 불교경전도서문물정리위원회에서 수집 분류하고 난 뒤 위원회에서 보관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인이 보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불교계의 민중들이 뜻을 모아 문화단체나 연구소 등을 설립할 경우 관련권 이양을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또한 역사성이 있는 각종 문헌이나 고증된 서류 등은 산실되지 않도록 불교 도서관을 건립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개인이나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문헌들을 기증할 수 있는 창구와 제도를 만들었다.

2) 시방총림 사원 획정

광복 이후 대만불교계는 총림급 사원 10개를 선정하여 시방총림(十方叢林) 사원으로 지정하였다. 이 시방총림 사원들이 연합하여 종파의 설립을 비준 및 허가업무를 담당하고, 승려제도를 구축하고 의식과 생활에 관련된 공주규약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전국의 각 성 청년들이 동절기에는 참선을 하고 하절기에는 교학을 배워 승려의 자격을 양성하는 제도를 정비하였다.

이 교육에 참여한 사찰은 약담수(若淡水) 관음산(觀音山), 기룡(基隆) 영천사(靈泉寺), 대호(大湖) 법운사(法雲寺), 사두산(獅頭山) 개선사(開善寺), 가의(嘉義) 대선사(大仙寺), 가남(嘉南) 개원사(開元寺) 등 6개 사찰이다. 그리고 각 지역에 산세가 수려하고 지역 환경이 좋은 곳을 찾아서 승가를 위한 시방총림을 지정하고 백장청규가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그리고 각 사찰에서 상반기와 하반기 각 6개월씩 50명에서 100명 단위의 학인들을 수학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이렇게 일차 교육 받은 사람들을 다시 4개 사찰을 지정하여 6개월 단위로 재교육을 시켰다. 재교육을 담당한 사찰은 중화(中和) 원통사(圓通寺), 중력

16) 釋東初 編著, 『東初老人全集』 5, 東初出版社, 中華民國 99年, pp.19-21. 「如何革新臺灣佛教」에서는 식민치하에서 건립된 불교관련 건물들을 대만성불교회분회에서 접수 관리하도록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中壢) 원광사(圓光寺), 사두산(獅頭山) 사암동(獅岩洞), 강산(岡山) 연봉암(蓮峰庵), 병동(屏東) 동산사(東山寺) 등 4개 사찰이다. 또한 이 중에서 관음산(觀音山), 법운사(法雲寺), 대선사(大仙寺) 등 3개 사찰을 지정하여 율종 제도를 바탕으로 수계를 실시하도록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들 지방총림은 주지는 4년에 한 번씩 선거로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분규를 사전에 차단하였다.

3) 민중 중심 신앙체계 건립

대만 국민들은 매우 다양한 신앙체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불교의 전통이 무엇인지 찾아보기 어려운 사찰들이 많았다. 부처님을 비롯하여 옥황, 삼관, 여후, 여조 등 뿐만 아니라 불교도 내에서도 용화과, 금동과, 불문과 등 다양하였다. 이로 인하여 사원 내에 불상 뿐만 아니라 각종 신상, 요괴, 귀신, 등 미신적 요소들이 뒤섞여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교사원과 재당을 구분하고 신불(神佛)을 분리하고, 정신(正信)과 미신(迷信) 구분하였다.

불교 사원에서는 일체 외도사마 등의 신상을 함께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제하였다. 또한 불교도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경전만 독송하고 일체 외도의 경전과 진언들은 받아 지니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사원과 재당 건립의 표준안을 제시하고 대만 전역의 모든 불자들이 미신(迷信)을 버리고 정신(正信)을 갖도록 제도(濟度)하였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찰의 지출을 막고 대만성불교회의 각 단위별로 상무, 이사, 감사 제도를 도입하여 관리 감독함으로써 서로 균형을 이루도록 제도화하였다. 이로써 대만불교는 혁신적인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었다.

2. 칠조규정을 통한 대만불교 정화과정

건국 후 일본불교의 적폐를 일소하고, 미신이나 다른 유사종교와 습합되어 있던 대만 불교를 정화하는데 앞장선 선구자는 석백성(釋白聖) 스님이다. 그는 1953년 봄 지방총림 중에 하나인 대선사(大仙寺)에서 수계식(授戒式)을 직접 주도하에 봉행하였다. 이 때 승속이 불분명한 폐단을 척결하기 위한 일곱 가지 규정, 이른바 ‘칠조규정(七條規定)’을 제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는 승려들을 점차적으로 모두 제거하고 도태시켰다. 칠조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반드시 집과 속세를 떠나 승려의 위의를 갖추지 않으면 비구계를 수여하지 않는다.

둘째, 출가자는 속인 복장을 해선 안 된다. 만약 승복이 없으면 3일 안으로 승복을 갖추고 그렇지 않으면 거사계를 반납한다.

셋째, 출가자나 재가자나 모두 일률적으로 승보를 스승으로 삼는 자라야만 수계를 받을 수 있다. 만일 재가인을 스승으로 모시는 자는 하루 빨리 고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를 내리지 않는다.

넷째, 거사계를 받은 모든 자는 신도나 무리를 거느려서는 안 된다.

다섯째, 계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것을 금한다. 위탁한 계는 모두 무효로 한다.

여섯째, 과거 다른 종파의 계를 수지한 자는 반드시 삿됨을 개정하고 바른 도리로 돌아올 것을 선서한다.

일곱째, 수계를 받은 날로부터 음주, 흡연, 육식을 절대 금한다.¹⁷⁾

이와 같은 칠조규정을 분석해 보면 출가자와 재가불자의 위의를 강조하고 수계의 조건을 간결하면서 분명하게 정하였음을 보여준다. 대만불교는 매우 복잡한 계를 수지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간단한 계율만으로 정화를 이루어냈다. 계의 핵심 내용은 출가자는 그에 부합하는 위의, 복장을 갖추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불교계 내부의 혼탁과 막행막식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칠조규정의 두 번째 의도는 재교 또는 운재교를 중심으로 하는 비승비속의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었다. 재교 형태의 불교 종파는 일본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일본불교의 대다수가 대처식육을 허용하는 재가교단과 같은 모습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화가 대만불교에도 전파된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대만 내에도 그 이전부터 이와 유사한 재가불자 중심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습합된 측면도 있었다. 이로 인해서 거사계는 반납해야 했으며, 거사를 스승으로 모시는 승니도 퇴출되었다.

칠조규정의 세 번째 의도는 음주, 흡연, 육식을 금지하여 승가의 위의를 지키고자 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대만 내에는 콩과 채식 중심의 음식문화가 자리잡게 되었다. 이른바 소식(素食)이라고 하는 대만불교 전통 사찰음식의 문화는 이 규정으로 인하여 발전한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칠조규정은 대만 국민들이 스님의 위의를 구분하는 결정적 기준으

17) 서상문, 「저자거리를 밝히는 청정승가의 빛」, 『불교평론』 10호, 2002 참조.

로 작용하였다. 즉 스님은 승복을 입고 사찰에서 거주하며 취차육식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이 생긴 것이다. 그리고 이 기준을 넘어서는 스님들에 대해서는 공양을 올리지 않으므로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문화가 형성되었다.

대만 최초로 1953년 대선사에서 봉행된 수계식은 석백성(釋白聖) 스님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다. 대남(台南) 대선사(大仙寺)의 전계법회(傳戒法會)에는 당시 이 사찰의 주지였던 백성스님이 개당사부(開堂師父)로 취임하였고, 대만 광복 후 처음으로 삼단 수계가 봉행되었다.¹⁸⁾ 이 수계법회는 대만의 대표적인 불교 제도 정비 사례로 꼽을 수 있으며, 대만불교의 면모를 일신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대만불교 승려의 율의생활이 열리는 기준이 되었다.

이 전계 법회는 대만불교의 현대 문화적 혁신의 단초를 마련해 주었으며, 일본식 불교 유풍을 말끔히 털어내는 정화의 핵심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계율의 전통으로 돌아가서 중국에 전래된 전통불교를 회복시켰으며, 향후 계단 설치와 운영의 모범으로 자리 잡았다.

대선사 전계법회 이후 1954년 사두산(獅頭山) 원광사(元光寺)에서 제2차 전계법회가 개설되었으며, 1955년 대북(台北) 시보사(十普寺)에서 제3차 전계법회가 거행되었다. 이후부터는 정식으로 승려교육을 받은 스님들이 전계법회에서 수계식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하안거 결사가 이때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대만 승려들의 자질이 함양되고 수행풍토가 쇄신됨으로써 대만불교는 민중의 지지를 받으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3. 1960년대 이후의 대만불교

대만불교의 변천 과정에서 대륙에서 건너온 스님들과 기준에 정착한 스님들 사이에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륙에서 건너온 스님들이 투옥되기도 하였고, 여러 가지 차별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백성, 인순, 동초, 자항 등과 같은 고승들의 헌신과 범력은 대만 건국 초기의 불교 발전에 초석이 되었다. 그리고 이들의 제자들에 의하여 대만불교는 혁신적 변화가 이루어졌다.

1949년 문화혁명의 과정에서 은사스님인 지개상인(志開上人)을 잃고 대만으로

18) 여기에 함께 증명법사로 참여한 고승들은 開參老和尚任得戒和尚, 智光法師任說戒和尚, 滄法師任羯磨和尚, 道源法師任教授和尚, 戒德法師任陪堂師父 등이다.

건너온 성운(聖雲) 대사는 1967년 불광산사를 창건하고 대만 전통불교와는 다소 다른 신불교 운동을 전개하였다.¹⁹⁾ 그리고 세계 각지에 200여개의 포교당을 건립하고 2,000여명의 스님들이 수행하는 대가람을 만들었다. 성운스님은 TV 및 라디오 등의 방송국을 설립하고 인터넷을 비롯한 언론 매체를 활용하면서 국제적으로 대만불교의 위상을 끌어올렸다.

대만에서 태어났지만 인순대사의 법을 이어 받은 비구니 증엄스님은 1966년 국제 구호단체인 자제공덕회를 만들고 사회복지와 봉사활동을 통한 포교 체계를 구축하였다. 전 세계 약 700여만 명의 후원자를 거느린 자제공덕회는 화련의 자제정사와 함께 대만을 대표하는 불교단체로 알려져 있다.

1987년 네 명의 제자와 함께 대중을 결성하고 수행조직을 운영하기 시작한 유각스님은 수행포교를 중심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중대선사를 창건하였다. 그리고 국공 내전 과정에서 10년 간 장교로 근무하다 출가한 성원스님은 법고산사를 창종하고 교육을 통한 포교기반을 구축하였다. 이와 같은 대만 신흥 4대종단의 창종과 발전은 1953년 출발한 전통불교 종단들에게도 큰 자극제가 되었다.

2010년 대만 내 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등기된 도교사원, 불교사찰, 교회, 성당 등은 총 15,211개로 나타났다. 등기된 종교별 교파는 총 27종으로 집계되고 있다. 전체 종교시설 중에서 불교계와 도교계 사원이 총 11,875개로 가장 많았으며, 이중 도교사원이 78.3%, 불교사찰이 19.6%를 차지했다. 교회와 성당 등 기독교계 시설은 총 3,336개로 이중 개신교가 76.5%, 가톨릭이 22.2%로 나타났다. 불교계는 사찰의 수가 4000여개, 스님은 9,304명, 그리고 순수 신도의 수는 367만 명 정도로 나타났다.²⁰⁾ 대만 전체 인구 비율 중에 불교신도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그 이유는 대만은 복합 종교적 현상이 많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 함께 불교를 믿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2005년도 위키디피아 조사 결과를 보면 순수 불자의 비율이 약 35% 정도로 나타났다.

현재 대만불교는 1960년대 이전에 자리 잡은 전통불교 종단의 사찰들과 그 이후에 창건된 신흥 종문의 사찰들이 선의의 경쟁을 벌이면서 발전하고 있다. 그렇지만 어떤 교파에 속하든 불교계 사찰은 청정한 계행을 지키는 스님들이 아니면 불교 사찰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것은 1953년부터 시작된 대만불교

19) 성운, 이인옥 역, 『쉽지 않은 만남』, 운주사, 1999, pp.15-16.

20) 차이나브리프, 2011년 6월 18일자 참조.

의 정화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V. 결어

대만은 동아시아의 해상 교통의 요지에 있는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많은 외세의 침탈에 시달려야 했다. 1540년 대두왕국 건립, 1624년부터 네덜란드와 에스파니아의 점령, 1662년 정씨왕국 건립, 1683년 청국 복건성으로 복속, 1884년 프랑스 점령, 1885년 청의 22번째 성으로 승격, 1895년 일본 식민지, 1945년 독립, 1949년 국민당 중심의 중화민국 건국 등의 역사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대만불교도 부침을 거듭하였으며 특히 일본 식민지 50년 동안 일본불교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중화민국 건국 이후 일본불교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정화과정이 전개되었다. 대만불교의 정화과정은 한국불교의 그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만불교의 정화과정은 계율중심으로 매우 조용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반면에 한국불교는 정화과정이 매우 길었고, 그리고 각종 소송이 난무하고 폭력적 과정을 거치면서 전개되었다. 대만불교는 칠조규약을 통해 간결한 계행을 사회적으로 선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승려는 환속할 수밖에 없는 계율을 강력하게 실천하였다. 대외적으로 선포한 계율의 핵심은 대처식육의 금지, 사찰에서의 거주하며 청규를 준수하는 것이었다. 이로 인하여 일본불교의 유습이 저절로 사라졌으며, 청정 비구 중심의 교단이 형성되게 되었다. 다만 대만불교의 승가는 평생 출가를 서원하고 실천하는 경우도 많으나 일부 사찰에서는 단기출가, 기간출가 등의 특성도 나타나고 있다. 즉 일정 기간 출가 생활을 경험하고 환속하는 것에 대하여 큰 거부반응 없이 받아들이는 문화가 형성된 것이다. 다만 출가자로서의 생활하는 기간에는 철저히 계행을 준수해야만 한다.

둘째, 대만불교의 정화과정은 제도화의 과정을 통해서 안정되었다. 즉 대만불교는 일제 강점기에 형성된 사찰과 동산 및 부동산 등에 대하여 대만 정부와의 협정을 바탕으로 신속하면서 확고하게 소유권을 정리하였다. 그 중심에 대만성 불교회가 존재하고 있다. 이후 대만성불교회는 중국불교회로 개칭되었으며, 전국과 시군구 단위로 개설되면서 중요한 협의체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총림 사찰

10개를 선정함으로써 각 지역의 거점 사찰을 먼저 확정하고 단위 사찰들을 각 총림에 배치하였다. 총림 사찰의 주지는 4년 임기제로 중국불교회의 각 지역분회에서 선거로 선출함으로써 잡음을 사전에 없앴다.

셋째, 대만불교는 정화과정을 통해서 사찰과 승가의 위상이 급격히 높아졌다. 대만불교는 소송이나 폭력적인 사찰 쟁탈전이 없었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서 사찰의 위상과 스님들의 사회적 지도력이 크게 고양되었다. 또한 다른 종교들의 성직자에 비해서도 대만 사회에서 스님들의 지도력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광산사와 자제정사에서는 TV 및 라디오 방송국과 신문, 잡지 등을 발간함으로써 대중매체를 통한 포교기반을 잘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 매체를 통해 사찰의 역할과 스님들의 활동이 잘 알려지게 되어 사회적 지명도도 매우 높은 편이다.

넷째, 대만불교의 정화과정은 현대적인 포교방법 개발에 촉진제 역할을 하였다. 대만불교계는 일정한 계율을 지키기만 하면 스님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크게 장려하였다. 그리고 대만불자들도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많은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것은 대만불교계와 스님들이 사회적 신뢰도를 구축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사찰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 복지시설, 환경 교육센터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시설 등이 매우 활발해졌다. 주요 신홍종문 들은 4년제 정규대학과 대학원들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지식인의 발굴과 그들의 불교 활동을 적극 지원하였다.

현 시점에서 대만불교를 통해 한국불교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은 계율의 문제이다. 대만불교조계종단을 비롯하여 종단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중도들이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계율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하고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사회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계율과 승가에서 실천하는 것이 다를 경우 그 자체로 사회적 지도력의 약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한국불교의 위상 약화는 여기서 초래되고 있다. 대만불교는 일생을 계율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출가 수행자로 생활하는 동안에는 철저하게 계율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지킬 수 없을 때에는 환속하여 재가불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실천하고 있다.

향후 한국불교는 다종교사회에서 주요 제도종교가 경쟁과 균형을 이루면서 상당기간 존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환경에서 승가의 경쟁력은 도

덕적 우월성, 그리고 지혜를 통한 정신적 지도력이 버팀목이 된다. 또한 사찰의 영향력은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과 봉사로 확대될 수 있다. 대만불교는 이미 이러한 점을 1950년대 초반부터 인식하고 실천하여 오늘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참고문헌

- 김응철, 「대만불교의 역사와 신흥 4대종문」, 『대만불교의 5가지 성공코드』, 불광연구원, 2012.
- _____, 「대만불교의 성공요인과 한국불교의 성찰」, 『전법학연구』 창간호, 불광연구원, 2012.
- 김광식, 「한국 현대불교와 정화운동」, 『대각사상』 7집, 대각사상연구원, 2004.
- _____, 「불교 '정화'의 성찰과 재인식」, 『근현대불교의 재조명』, 민족사, 2000.
- _____, 「정화운동의 전개과정과 성격」, 『새불교운동의 전개』, 도피안사, 2002.
- _____, 「용성의 건백서와 대처식육의 재인식」, 『한국 현대선의 지성사 탐구』, 도피안사, 2010.
- 김순석, 「대한불교조계종과 한국불교태고종의 성립 과정」, 『한국 근현대 불교사의 재발견』, 경인문화사, 2015.
- 김제란, 「대만 근대불교의 형성과 정체성 모색」, 『범한철학』 61권 2호, 2011.
- 서상문, 「저잣거리를 밝히는 청정승가의 빛」, 『불교평론』 10호, 2002.
- 성 운, 이인옥 역, 『쉽지 않은 만남』, 운주사, 1999.
- 이경순, 「불교정화운동의 인식과 현재적 의미」, 『대각사상』 33집, 2020.
- 이재현, 「이승만대통령의 유시와 불교정화운동의 전개」, 『대각사상』 22집, 2014.
- 제점숙, 「식민지 조선과 불교 - 근대기 대처승 문제를 둘러싼 한일 불교계의 동향」, 『대각사상』 22집, 2014.
- 조너던 클레멘토 지음, 허강 옮김, 『해적왕 정성공 - 녹정기의 추억』, 삼우반, 2008.

Abstract

Study on the Process of Buddhist Purification in Taiwan

Kim, Eung-chul
(Professor, Joong Ang Sangha Univ)

This review is a summary of the process and character of Taiwan Buddhism. Taiwanese Buddhism has not received much attention in Korea, but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 trend of interest in Taiwanese Buddhism. In this background, various studies are being conducted on the history, identity, factors of development, and people of Taiwan Buddhism.

Against this background, I intend to examine the contents of the purifying identity of Taiwan Buddhism in this article. I have paid attention to the development factors of Taiwan Buddhism in terms of social welfare. However, this article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purification of Taiwanese Buddhism by dividing it into a few. First, the aspect of purification centered on precepts. Second, it has gone through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Third, the status of temples and monks has increased due to purification. Fourth, the method of propagation was promoted by purification.

It is hoped that such research will be helpful in understanding Taiwan Buddhism. Furthermore, this review can be a perspective that allows a new understanding of the Korean Buddhist purification movement, the Jogye Order, and modern Korean history.

Key words

Taiwan Buddhism, Buddhism Purification, Japanese Buddhism, Married and Meat Eater, Married monks, Precepts Purification

논문투고일 : '21. 04. 08. 심사완료일 : '21. 05. 25. 게재확정일 : '21. 05. 25.